

# 대풍이었는데... 전남 쌀 생산량 다시 감소세

### 올 79만9000t 예상 ... 전년보다 2.9% 줄어든 듯 값 하락·재배면적 ↓ ... 정부, 초과분 18만t 매입

농도(農道) 전남의 쌀 생산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지 1년 만에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 면적 감소와 악용이나 밭작물 증가 등의 여파로, 국내 쌀 생산량 1위 자리도 3년 연속 충남에 내줄 판이다.

14일 호남지방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쌀 예상생산량은 79만9000t으로 지난해(82만3000t)보다 2만4000t, 비율로는 2.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10ha)당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생육 초기 이삭수가 증가하고, 벼 낱알이 익는 시기(등숙기, 9월 상순~9월 하순)에 일조량 증가 등 후기 기상여건 호조로 완전남알수가 증가하긴 했으나 대풍인 전년(483kg)보다는 2.3% 감소한 472kg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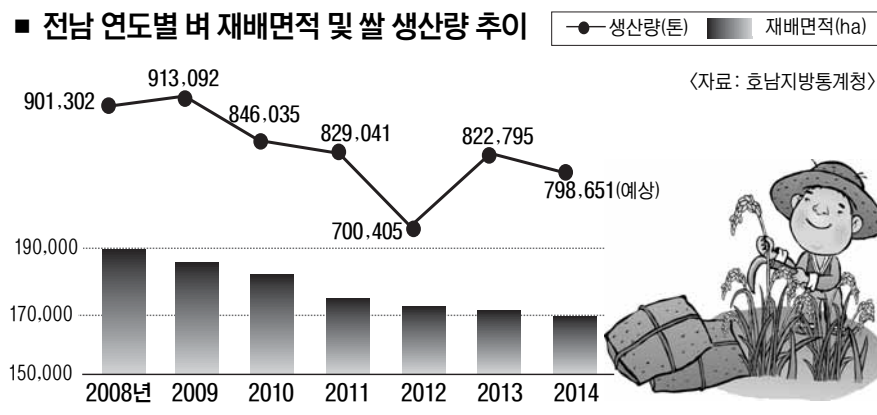
전남의 쌀 생산량은 2002년과 2010년 각각 100만t과 90만t의 벽이 무너진 뒤 2012년에는 사상 최악의 흉작으로 70만t

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대풍작을 기록하며 겨우 82만t 평년수준을 회복했다.

농업 전문가들은 요즘 태풍이나 병충해가 쌀농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생산량 감소는 논 면적 감소 등 재배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남의 벼 재배면적은 공공시설이나 건물건축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와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악용·특용작물 등 밭작물 전환 등으로 전년에 비해 0.6% 감소한 17만ha에 그쳤다. 2009년에 비하면 1만8000ha나 감소했다.

쌀 생산량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쌀 시장 개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난데다, 벼 대신 소득이 높은 악용·특용작물 등 밭작물로 품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남농민회 한 관계자는 “쌀값 하락 등 경영악재 속에서 누가 쌀 농사를 짓겠느냐”며 “이런상황에선 풍년이 들어도 기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쌀 총생산량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평년 수준은 될것이라 전망하고 초과공급분 최대 18만t을 선제적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1인당 쌀 소비량이 64.4kg으로 감소해 총

쌀 수요가 400만t 정도일 것으로 보고 초과공급분을 18만t 범위에서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입물량은 다음 달 실제 수확량과 쌀값 동향을 토대로 확정하며,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매입물량은 밭살용으로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2014년산 공공비축용 쌀 37만t과 ‘동아시아 비상 쌀 비축제도’ 해외공여용 쌀 3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9.25 (+2.04)
- ▲ 금리 2.28%(+0.02)
- ▲ 코스닥 544.05 (+9.74)
- ▼ 환율 1064.50원 (-3.40)

## 효성, 전북 중기와 국제 전시회 참가 동반성장 구축

효성이 10월중 독일 및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복합재료 전시회에 탄소섬유 공장인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해 동반 성장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효성은 7~9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전문전시회 ‘컴퍼지트 유럽 2014’에 탄소섬유 필터 제조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와 탄소 복합재료 업체 케이엠, 탄소섬유 건축보강재 업체 AFFC 등과 함께 참가했다.

또 14~16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컴퍼지트 어드밴스드 마티리얼스 엑스포’에도 이들 업체와 함께 공동 전시부스를 꾸렸다.

조현상 효성 산업자재PG장(부사장)은 “탄소섬유 공장이 있는 전북 현지 기업과 함께 참가해 기쁘다”며 “기술은 뛰어나지만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 일부 라인 中 이전

광주 고부가가치 생산 집중

광주에 국내생산기지를 둔 동부대우전자가 생산거점 최적화 방안으로 광주공장을 대형가전 기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소형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일부 생산라인은 중국으로 이전한다.

14일 동부대우전자 등에 따르면 지역별 현지화 전략에 맞게 생산거점을 최적화하고, 제조원가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광주공장의 일부 소형가전 생산 라인을 빼고, 대형 냉장고 라인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광주공장에서 생산중인 제품 가운데 400ㄷ 이하의 소형 냉장고 및 세탁기 등 2개 제품 생산설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텐진 공장으로 이전하게 된다. 출력가는 물량은 냉장고의 경우 연간 3만대 가량이다.

대신 광주공장은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양문형냉장고, 400ㄷ 이하의 중형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와 10kg급 이상 전자동세탁기, 벽걸이 미니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미 2개월 전 광주지역 금형업체와 프리미엄 냉장고 생산을 위해 800ㄷ급 대형 1개, 480ㄷ급 이상 중형 2개의 금형개발을 의뢰한 상태다.

11월 말까지금형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클라세’ 브랜드로 신제품 냉장고가 출시될 예정이다.

광주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동부대우전자의 생산라인 교체작업은 국내 공장을 프리미엄 가전 생산체제로 바꾸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협력업체의 피해는 우려되지만, 매출 5조원 달성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으로, 점차 지역경제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푸드트럭 공원서도 장사

유원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던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앞으로 도시공원 내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중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푸드트럭은 커피 같은 음료나 핫도그, 떡볶이 등의 간단한 간식거리를 파는 소형 차량으로 기존에는 놀이 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안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다.

푸드트럭의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 규제 사례로 정부는 이 건의를 수용해 영업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역 기업체 CEO 초청 간담회

NH농협은행 김주하 은행장은 14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전남 소재 기업체 CEO 40명을 초청해 오찬 및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와 금융지원을 위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다.

〈협천남지역본부 제공〉

## 투쟁수위 높이는 기아차 노조 ... 17일까지 부분 파업

### 임단협 24·25차 교섭 관심

14일 9차 부분파업을 시행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17일까지 나올 연속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등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의 일단 결렬과 관련, 투쟁수위의 강도를 높인다.

14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

차지부는 지난 13일 제7차 쟁의대책위원회 열고, 제24·25차 교섭이 진행되는 14일과 15일을 포함, 17일까지 총 28시간의 총량제 부분파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14일 주·야 각 4시간의 부분파업을 시행했으며 15일과 16일 각 2시간, 17일 각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교섭 당일엔 파업을 하지 않았

으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간파업(업무중 파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최근 현대차의 합의안처럼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금여의 고정성이 현대차와 분명 다른 만큼,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 중이다.

사측은 지난 8일 열린 23차 본교섭에서 두 번의 수정안을 통해 ▲기본급 9만2000원 인상 ▲성급급 및 격려급 400%+800만원 등을 제시했으며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의 요구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24·25차 교섭에서 사측의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7일 8차 쟁대위를 열고, 추가파업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신보, 日 수출기업 보증료 감면 특례 보충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홍운기)는 엔저 현상에 따라 수출감소 피해를 겪거나 엔저를 활용해 자본재를 수입하려는 기업에 보증료 감면 등 특례 보증혜택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거나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기계·철강·전자·섬유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또 신보는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무역금융과 일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자본재 수입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는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고 매출이 40%까지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을 완화한다. 문의 (062)607-918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영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현)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둑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